

1월의 안테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사람은 과거를 음미하며 살기 때문에 매년 한해가 가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또 한해를 맞는다. 작년처럼 다사다난이란 말이 실감나는 해도 없었으리라.

이산가족찾기로부터 사할린, 랑군운에서 많은 눈물흘릴 일이 계속되었고, 브로일러 업자들은 10월에 다시한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83년이 이렇게 어려웠던 한해이었기에 84년에 기대하는 소망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희망 없는 삶이란 생각할 수도 없기에 84년도에 우리와 관계되는 몇가지 변화될 일들을 소개하여 새해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양계업자들이 그렇게 염려하던 레이건대통령 방문시 미국측에서 수입개방을 요청한 닭고기 및 계란은 적어도 84년 상반기에만 안심할 수 있으나,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데다 최근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대해 국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

로 설마하고 안심만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위커 주한미국대사의 「한국이 자유화를 계속 치 않으면 미국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 충고가 양계산물의 수입개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을 양계인이 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배합사료가격을 최대한 인상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우리는 양축가를 위해서 크게 배려하여 주는 정부당국에 감사하나 과거에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으로 이를 통제하였을 경우 품질의 변화로 양축가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았고 언젠가는 한꺼번에 충격적인



쪽으로 인상되어 바람직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84년도에 이러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인상요인을 제거해서 근본적으로 가격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란다.

현재 배합사료가격은 국산옥수수 사용에 따라 2.2%, 옥수수(수입)관세인상으로 1.1%, 국산 대두박가격 인상으로 0.5%, 도입 대두박가격 인상 및 관세인상으로 0.7%, 채종박, 소맥피, 도입수수 등의 관세인상, 가격인상 등으로 0.6% 등 약 5.1%의 인상요인에서 사료용소맥을 싸게 구입 하고 호밀 등의 관세인하로 0.7%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제하면 4.4%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이외에 기왕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84년도부터는 가축들이 국산보리를 사료로 섭취하게 되어 약 4%의 인상요인을 합하면 8.4% 정도가 인상되어야 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된다. 국산 보리의 사용량이 151,000t 또는 282,000t의 양설이 있으나 어쨌든 최저 8.4%의 인상요인을 생각해야 한다. 사료업계에서도 원료다양화를 통한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이 요청하는 인상요인이 경영합리화로 자체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이 예견되고 정부의 예산동결과 긴축 등으로 양계업계의 새해 전망이 어두운 면도 있으나 정부발표와 같이 80년대 중반에 우리는 제 2의 경제도약을 실현하여 80년대 후반에는 성숙번영기에 들어설 것이다. 우리는 이미 GNP 산정기관인 한국은행이 기준년도를 75년에서 80년으로 옮기므로써 가만히 앉아서 82년 1인당 GNP가 1,671\$에서 1,800\$로 인상되었고 83년은 1,870\$, 84년은 1,986\$, 86년에는 2,226\$, 88년에는 2,500\$로 성장하여 축산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온다고 야단들이며 오웰에 대한 특집기사들이 보도되고, 핵시계는 3분전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날 이후」라는 영화

를 2억의 미국인이 시청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불안한 새해를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새해에 소망을 걸어본다. 지난해를 망년(忘年)하고 갑자(甲子)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84년을 기대한다.

도입옥수수에 대한 농약살포 소동

12월 27일자 신문 사회면에 부산에서 사료용 도입옥수수에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여 취급인부가 죽거나 중태에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사료값이 오르고 품질은 떨어진다는 양축가들의 불평과 그 원인이 품질나쁜 수수이거나 정부의 가격인상 억제조치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 신문보도는 많은 양축가



들이 닭이 먹는 사료에 농약을 뿌리다니 하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도입되는 사료곡물은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소독약으로 포스톡신이나 메칠부로마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약품은 곡물에 침투는 되나 잔류는 안되기 때문에 양축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부산의 경우 강력한 휘발성을 가진 메칠부로마이드를 취급하는 인부들에 대한 교육부재와 소홀로 전문적지식이 없는 양축인들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신문들은 메칠부로마이드로 오보)

이번 기사를 보고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하며, 「월간양계」를 만드는 우리는 더욱 끊임없는 노력으로 잡지인의 책임을 다하여야겠다고 다짐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고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는 한해이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되며, 또한 일에는 순서가 있어 먼저 할일과 다음에 할일이 있음을 알려준다.

10월의 브로일러가격 폭락도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GP 단계부터 생산조절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길러 놓은 닭고기를 수매 비축해서 공급량을 조절하려니 힘겨움고 부작용이 많았다.



도계유통도 순서가 뒤바뀌어 급한 대로 털뽀는 시설에만 치중하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도계유통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단추를 잘못 끼워 옷입은 맴시가 흉하기 한이 없다. 채란업제도 가격결정 과정에서 순서(질서)없이 반년동안 뒤죽박죽이었다. 새해에는 브로일러의 제열화와 제란 집란센터(GPC)가 추진되어 양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처음 시작과 순서를 가려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위 무허가건물이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조

치가 이루어졌으나 과태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축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본회에서는 수차 관계요로에 축사에 대한 과태료 인하를 건의한 바 있었다. (본지 2월호참조)

많은 회원들의 협조로 관계요로에서도 우리의 건의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83년 정기국회에서 시정하여 줄 것을 약속한 바 있었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즉 양성화하는 시기를 85. 6. 30일까지로 연장하였고 과태료도 기준가격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우리의 요청이 대부분 관철되었다.

양계업계의 건의가 국회와 행정당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의 단합된 결과로 앞으로도 우리업계의 문제해결에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기왕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환불조치 된다.



“최신의 도계 시설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과학 시스템은 외국에서 10년전에 쓰던 진부한 시설이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턱 없는 시설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최선의 시설을 귀하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화시켜서 공급해 왔습니다. 7번 째의 메인(Meyn) 가족을 찾습니다.

meyn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